

# 3년간 재정지원 늘었는데...막판 4년에 775억 절감?

## 의혹 커지는 광주시-맥쿼리 제2순환도로 변경협약

민선 6기 광주시는 지난 2016년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맥쿼리)와 변경협약을 체결한 뒤 향후 2028년까지 1014억원의 재정지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연평균 78억원의 절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협약을 변경했음에도 지난 3년간 광주시의 재정지원금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변경협약 실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협약 변경 참여 인사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적용한 기존의 최소수입보장방식(MRG)은 최초 운영결과를 설정한 최소수입보장금액에서 실제통행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가 지원하는 것이었다. 시는 2016년 이를 '대안적'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변경했다. 이는 사업운영비(법인세, 운영비, 신규민간투자자 수익금, 신규민간투자자상각액)에서 실제통행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투자비보전방식은 투자자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맥쿼리를 그대로 유지해 '대안적'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이는 광주에서 최초로 적용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법인세(추정치 345억원)를 대신 내주기로 하고, 신규민간투자금을 2341억5000만원으로 인정해 9.8%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며, 합의금 형태의 재정지원대체자금 369억원을 건넸다. 그러면 시 1014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 실제 재정지원을 확인한 결과 오히려 19억5100만원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민선 6기 재정지원금 절감액 1014억원 짜릿하기 의혹=광주시는 지난해 민선 6기 변경협약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광주일보 2018년 12월 3·17일) 절감 규모가 1014억원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서 시는 물가 2% 적용, 통행량 매년 약 2% 증가 등을 적용하면 2018~2028년까지 918억1360만원이 절감된다고

투자비보전방식으로 변경 10년간 1104억 절감 주장  
실제는 수십억원 더 내줘

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맥쿼리가 시설투자비 1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해 1018억 1360만원이 결과적으로 시의 이익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재정지원금 규모가 35억6300만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32억 1800만원을 더 내줬다.

전체 재정지원 절감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도 시는 최근 또다른 자료를 제시하며 2016년부터 2028년까지 협약 변경으로 1012억9080만원이 절감된다고 수치를 바꿨다. 애초 1014억원이라는 절감규모는 1018억원에서 다시 1012억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기존 자료와 최근 제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2억~3억원씩 수치가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절감액의 대부분이 2025년부터 4년간 집중돼 있다는 점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0억7740만원, 2026년 118억1880만원, 2027년 230억9130만원, 2028년 355억8790만원 등 4년간 775억7540만원이 절감된다. 전체 재정지원금 절감액의 80.7%가 협약 기간 막판에 쏟아지는 셈이다.

매년 일정 금액을 균등하게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 막바지만 2025년부터 시의 재정절감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6·2017·2018년에도 재정지원금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막상 해당연도에 확인한 결과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2025년 이후 대규모 재정지원금 절감 추진에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자체 협제로 맥쿼리와 기관투자자



22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협력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만 배불려=맥쿼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3-1구간 등 전국 11개 도로와 1개 항만의 장기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이 자산을 통해 최대한 수익을 올려 주주인 국내 기관투자자(48.9%), 국내 개인투자자(29.0%), 외국인투자자(22.1%)에게 배당하고, 맥쿼리 임직원의 연봉을 챙겨가는 구조다. 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가 8.2%의 주식을 가진 최대주주이며, 맥쿼리그룹 역시 3.8%를 가지고 있다.

맥쿼리는 국내 기관투자자 등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방의 도로, 항만 기반시설에 투자해 관리업무를 내세우고 여기에 고리의 차입금을 넣어 이자를 챙겨가는 방식으로 지자체·정부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시는 변경협약을 통해 MRG 대신 대안적 MCC(비용보전방식)를 도입

했지만, 근본적인 자본구조는 바꾸지 못하는 잘못을 범했다.

부산시 역시 해마다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받아오는 수경산터널과 백양터널을 관리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맥쿼리가 투자한 지방자치단체 기반시설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민선 7기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해서는 공익처분을, 여전히 MRG 방식인 3-1구간은 협약 변경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공익처분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 9개항 공동성명 송정~순천 고속전철화 등 7개 사업 건의

### 영호남 시장·도지사 협의회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영호남 8개 시도 시장·도지사는 22일 광주에서 '대기업을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부산·대구·울산·전남·전북·경북·경남 등 8개 시도 시장과 도지사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9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정부 보조비율 상향 ▲광주수영대회 성공 개최 협력 ▲공동관광상품 개발·마케팅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정연장 및 지원확대 ▲수소 경제 사회에 대비한 수소 인프라 구축

▲광역철도·도로망 구축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간 고속전철화', '부산~목포 광역철도망 구축' 등 7개 사업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건설' 등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한 4개 사업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인 이용섭 시장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20여년이 된 만큼 그 세월의 무게에 상응해 동서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과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영호남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열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8개 시도 운반제에 따라 이철우 경북지사를 차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998년 영호남 지역개발 협회와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문 대통령 "미세먼지 국민에 큰 고통...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처해야"

### 청와대 국무회의 주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촉한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고,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간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론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달라"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

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도 연구 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에 서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세

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은 2.05%에서 1.40%로,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2.21%에서 1.60%로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계간 **네이버 블로그** 에서 구독하세요

**가까운 무안에서 출발해요~**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푸~우~욱~

**무안 ↔ 기타큐슈 온천패키지로 올 겨울 따뜻하게♥**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TW티웨이 항공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출발

오후출발(화,금,토) 무안(20:20) → 기타큐슈(21:30) / 기타큐슈(23:00) → 무안(00:15)

- ◆ 기타큐슈, 뱃바, 유후인 2박4일 [정통] 529,000원~ / [품격] 599,000원
- ◆ 기타큐슈, 뱃바, 유후인 3박5일 [정통] 699,000원~ / [품격] 829,000원

**무안 ↔ 오키나와 활기찬 따뜻한 남쪽으로~**

12월 22일 ~ 2월 23일 매주 화,목,토 출발

- ◆ 화/목요일 출발 2박 3일 999,000원~
- ◆ 토요일 출발 3박 4일 1,249,000원~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매주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실속(세미더블)] 오사카, 나라, 교토 899,000원~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3박4일 999,000원~

**양양 - 기타큐슈**

겨울 온천 패키지 499,000원

문의 ☎ 1522-1901 >>>

**무안 ↔ 다낭 직항전세기 [매주 화(3박4일) / 금(3박5일)]**

화 출발 무안(08:40) → 다낭(11:15)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50) → 무안(07:40)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배개, 비디오 상영

[실속]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899,000원~ / 5일 949,000원~

[노팁,노음선]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1,099,000원~ / 5일 1,14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출발

- ◆ [노팁,노음선] 스펀, 단수이, 야류, 지우펀 699,000원~
- ◆ [고품격] 화련, 태로각, 지우펀, 야류 699,000원~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대표전화: 062-234-3222

**조이투어** F A X : 062-234-3141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DJM 조이투어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무안 ↔ 나트랑 2/2일 부터 출발**

[휴양+노쇼핑] 나트랑 3박 5일 890,000원~

[관광+휴양] 나트랑, 달랏 3박 5일 1,050,000원~

**무안 ↔ 방콕·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 [실속] 899,000원~ ◆ [품격] 1,099,000원~

**무안 ↔ 코타키나발루(제주항공)**

목요일 출발(3박5일) / 일요일 출발(4박6일)

[호피팩] 549,000원~ / [품격팩] 699,000원~

**무안 ↔ 세부(제주항공)**

월요일 출발(2박4일) / 화,수,금,토 출발(3박5일)

[세미팩] 429,000원~ / [품격팩] 69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JOY TOUR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동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비용 5만원이상, 관광진흥법기금, 관광 및 부수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 / 전 지역 ◆ 상가 요금: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 가입 업체 ◆ 예약시 개인사유로 취소 및 일정변경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비행료,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배개, 비디오 상영) ◆ 취소 환불안내: 상황에 따라 다름